

## 오해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인디

조원희 | 대중음악평론가

지난 7월 지상과 TV 화면을 통한 한 인디밴드의 난동적 사건에 의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디 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주류 언론은 지난 10여 년 간 조금씩 성장해온 이 필드를 단 몇 시간의 취재로 퇴폐적 향락문화로 단정지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음악을 틀어 놓고 춤을 추는 ‘클럽’과 공연이 열리는 ‘라이브 클럽’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보이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 오해이다.

2005년 7월 30일 오후 4시, 지면에 다시 옮기기 민망할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다. 다양한 연령층이 시청하는 휴일 오후의 지상과 TV 화면을 통해 결코 방송돼서는 안 될 화면이 전국에 뿌려진 것이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그들은 결국 ‘홍대 앞 인디 밴드’인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에는 ‘백댄서’로 알려졌던 그들의 정체가 ‘다른 밴드의 일원’인 것으로 밝혀진 후, 검거돼 기자들을 상대한 그들은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홍대 앞 클럽에서는 원래 이렇게 논다’는 발언을 했고, 모든 언론은 경쟁적으로 그 발언을 보도했다. 도대체 홍대 앞 인디 클럽이 어떤 곳이기에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던 말인가?

###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와 선정성

‘홍대 앞 인디 문화’로 표현되는 한국 대중음악의 언더그라운드라는 사실 ‘홍대 앞’이라는 상징적인 지명이 붙어있지만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는 대중음악의 ‘제 2 전선’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디펜던트, 혹은 언더그라운드, 내지는 마이너 리그라고 상징적으로 칭할 수 있는 대중음악 ‘제 2 전선’은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밴드라고 볼 수 있는 비틀즈는 독일의 함부르크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장기간 연주 활동을 했고, 그 경험으로 밴드의 음악적 정체성을 찾은 후, 영국으로 돌아와 화려한 데뷔를 했다. 1990년대 서구 팝 음악 전체를 뒤흔들었던 밴드 너바나 역시 ‘서브팝’(Subpop)이라는 마이너 레이블을 통해 활동하다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다.

아시아 팝 시장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일본에는 ‘인디즈’라는 공식적인 ‘제 2 전선’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밴드는 바로 이 ‘인디즈’ 시절을 거쳐 메이저로 데뷔한다. 한국 대중음악의 ‘제 2 전선’은

1960년대에는 신중현이 활동했던 미 8군 무대였고, 1970년대에는 조용필이 활동했던 야간 업소의 무대였으며, 1980년대에는 들국화와 동물원이 활동했던 '라이브 무대'였고,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홍대 앞 클럽 문화'로 대표되고 있는 '인디 씬(scene)'인 것이다. 1995년부터 언니네 이발관, 텔리 스파이스 등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한국 인디 씬은 크라이닝, 노 브레인 등의 펑크 밴드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자리를 잡게 됐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러, 한 해 200여 장의 음반을 생산해 내는 한국 대중음악의 풍요로운 '제2 전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10여 년 간 변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홍대 앞 인디펜던트 밴드로부터 메이저 그룹으로 발돋움한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다. 언니네 이발관, 텔리 스파이스나 자우림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 밴드'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지명도와 앨범 판매고를 지니고 있다. 인디 씬에서 활동하다 메이저에서 큰 인기를 얻는 아티스트들은 힙합 쪽에서 찾아보면 훨씬 더 많다. CB메스와 그 후신인 다이아믹 듀오, 그리고 주석 등은 홍대 앞에서 활동을 시작해 이제는 주류 아티스트로 성장한 케이스들이다. '문제의' 펑크밴드들 역시 마찬가지다. 크라이닝 너트 전국의 큰 행사와 공연마다 빠져서는 안 될 분위기 메이커로 군림하고 있고, 노 브레인이나 레이저본 역시 그에 못지 않은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 자리를 잡은' 뮤지션들만 자세히 소개해도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곧 앞서간 선배들을 추월하게 될지도 모르는 뮤지션들은 전국의 인디 씬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인디 씬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던 주류 언론들이 엉뚱한 사건 하나 때문에 갑작스럽게도 일제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에 있다. 10여 년 간 조금씩 성장해온 이 필드를 몇 시간의 취재로 알 수 있



일본 '인디즈'의 공연모습

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류 언론은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몇 명의 평론가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몇 군데의 클럽을 찾아가서 취재해 기사를 작성했다. 대부분의 매체들은 사건이 일어난 당일로 똑같은 결론을 냈다. 홍대 앞 클럽에서는 부비부비춤, 나체 공연 등의 '퇴폐 향락 문화'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클럽'과 공연이 열리는 '라이브 클럽'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보이며 이 낮은 필드를 오랜 기간 지켜보지 않아서 생긴 당연한 오해였던 것이다.

'부비부비춤'이 유행인 댄스 클럽은 밴드들이 공연을 하는 라이브 클럽과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며, 라이브 클럽에서는 결코 '나체 공연'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두 명의 악당이 벌인 헤프닝은 이렇게 한 문화현상을 주류 언론들이 완벽하게 오해하는 헤프닝을 낳았으며 이 보도에 화들짝 놀란 서울 시장은 홍대 앞 클럽에 대한 단속을 지시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한 정치인이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홍대 앞에서 공연이나 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코미디 중의

코미디로 발전해 나갔다. '홍대 앞의 공연 = 나체 쇼 등의 선정적인 문화'라는 해괴한 등식이 성립된 것이다. 처음 그 기사를 접했을 때, 그 발언을 한 정치인의 무지몽매함을 비웃을 수 있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니, 그 정치인의 무식이라기보다는 그가 보고 학습한 주류 언론의 보도가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대로 사회화가 되지 않은 자들의 돌출행동 때문에 '그들이 속한 집단 전체'를 매도하는 주류 언론의 무신경함이 모든 연쇄 해프닝을 일으킨 주범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 명의 정치인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정치권이 알고 보니 불륜자들의 집합소였다는 보도를 내거나 한 명의 공무원이 살인을 했을 때, 공무원은 살인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출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선정정보다, 그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가 훨씬 더 선정적이었던다는 결론이다.

### 사건을 통해 세상에 노출된 '인디 씬' 들

예의 MBC 음악캠프의 방송사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개인적인 비행(非行)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사고 때문에 방송위원회는 해당 방송의 해당 회에 대한 방송 중지명령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MBC는 자체 회의를 통해 음악캠프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예상 밖의 방송 사고에 대한 조치로는 매우 가혹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카우치 멤버들이 벌인 행동이 정신병적인 행동이며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들이 100% 면죄부를 받을 순 없는 일이다.

인디 씬에 대한 오랜 교양이 있는 제작진이었다면 '대중음악 평론가에게 캐스팅을 맡겼기 때문에 자신들

과는 무관하다'는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지상파 방송 매체와는 좀처럼 궁합이 맞지 않는 펑크 뮤지션들보다는 다른 장르를 선택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도 펑크에 대한 애정이 있어 펑크 밴드를 캐스팅했다면 오랫동안 방송과는 하등의 관련 없는 행보를 걸어왔던 스킵 레이블의 밴드 럭스보다는 조금 더 방송 친화적인 밴드를 캐스팅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조금 과격한 밴드가 펑크의 본질을 보여주는 쪽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다면, 그리고 럭스가 속한 레이블이 상당히 과격한 성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레이블의 친구들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무대 위에 올려놓는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인디를 소개하는 코너를 만든 제작진이 인디에 대한 확실한 교양을 지니고 그 코너를 몸소 책임질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크며,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책임의 소재가 확실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 때문에 거의 모든 인디 뮤지션들이 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상파 3사의 무대 중 유일하게 인디 밴드에게 배정돼 있었던 무대가 사라져 버린 것은 물론이고 앨범 판매량이 극미하기 때문에 행사나 공연으로 얻는 수익이 거의 전부인 인디 밴드들의 공연 취소 사태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디 밴드들의 공연은 자신들의 음악을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들에 게스트로 출연하는 것은 클럽 공연조차 큰 수익이 되지 않는 그들에게 가문의 단비와 같은 수입원인 것이다. 인기가 많은 밴드로부터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밴드들까지, '인디'라는 꼬리표가 붙은 밴드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배고픈 그들이 더 배고프게 됐다는 것이며 이보다 더 슬픈 것은 '무대 위에서 웃이나 벗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주요

홍대 앞 클럽 문화'로 대표되고 있는 '인디 씬' (scene)은 크라이넛, 노브레인 등의 펑크 밴드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자리를 잡게 됐다. 그리고 현재 한국 대중음악의 풍요로운 '제2 전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홍대앞 인디밴드의 공연모습

포털 사이트에 인디 밴드에 관한 뉴스가 뜨면 예의 사건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밴드의 기사일지라도 욕설과 비아냥의 댓글이 달린다. 지금까지 무관심 속에서 꾀꾀이 활동하던 그들이 이제는 경멸받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는 것은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인가.

이 모든 상황을 도식적으로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화가 덜된 무개념의 2인이 지상파 TV 생방송 도중 노출 사고를 일으킨다. 그들은 검거된 후 기자들에게 반사회적인 태도로 대한다. 기자들은 그들이 생소한 인디 밴드라는 것에 초점을 잡아 보도한다. 하지만 그동

안 그리 관심 없었던 필드이기 때문에 무성의하고 오해로 가득한 보도를 하게 된다. 난데 없는 방송사고에 어리둥절해 있던 대중은 그들이 생소한 '인디 밴드'였다 는 사실에 집중하게 된다. 평생 단 한번도 인디 밴드의 공연을 본 적이 없는 시장까지 홍대 앞 클럽 씬에 대한 정리 지시를 내린다.

결국 수많은 대중이 지금까지 전혀 관심 없었던 '인디'는 퇴폐 공연이 난무하는 이수라장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그렇게 배고픈 인디 씬은 심지어 상처 입게 된다. 일련의 상황은 인디 씬이라는 필드에 대한 '무지'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 이쯤 되면 노출 사건을 일으킨 그들은 문제의 핵심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동안 언론이 꾸준히 인디 씬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면 절대로 인디 씬 자체가 상처입지 않았을 것이며 대중들은 이 사건을 '개인적인 비행'으로 이해하고 웃어 넘기거나 사건을 일으킨 그들에게만 온전한 증오를 보냈을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로 사고해 보자면 오해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대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인디 씬'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게 됐다. 앞으로 뮤지션들이 이 모든 슬프고 아픈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10여 년 간 해온 것처럼 순수한 음악적 열정을 펼쳐나간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그들 앞에 나설 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상처는 스스로 치료해야 할 뿐이다.